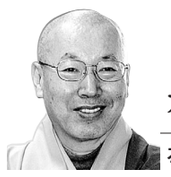
어떻게 '정진바라밀' 성취할 것인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문이란 정진바라밀을 말한다. 범어 '비리야(virya)'를 번역한 말로 부지런히 애써 노력한다는 뜻이다. 깨달음을 목표로 쉬지 않고 용감하게 수행을 다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본문에서 진문의 수행을 간명하면서도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좋은 일과 착한 일에 있어서 마음에 게으름을 먹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뜻을 굳게 세워 비겁해지거나 나약함이 없이 임해야 한다. 과거 오랜 옛적부터 헛되이 몸과 마음에 수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 분발하여 부지런히 모든 공덕을 닦고 자신과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여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진문을 단순히 수행의 거듭된 진행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분발, 자리이타의 공덕을 닦으면서 고통의 소멸을 이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진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서술하고 있다.

"지난 세상 숙세로부터 무거운 죄와 나쁜 업의 장애 때문에 사악한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세상의 잡무에 얽매이며 병으로 괴로워하는 등 많은 장애가 생기는 수가 있다. 이러한 장애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용맹정진을 가하

용감히 수행을 다지는 게 진문

기도·참회·권청으로 장애 극복

고, 밤낮으로 시간을 맞추어 부처님께 예배하여 성심으로 참회하고, 미망에서 벗어나 깨우쳐 줄 것을 청하며, 기꺼이 깨달음을 향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정진의 내용에 예배와 참회, 그리고 권청을 들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 사항이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하는 것은 수도 상의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원효스님은 참회는 모든 나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고, 권청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소멸하는 것이며,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는 수희(隨喜)는 남이 나보다 나은 데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한 죄를 제거하며, 회향은 중생의 세계인 삼유(三有)에 즐겨 집착하는 것을 대치하기 위해서라고 〈해동소〉에서 설명하였다.

"사람이 왕에게 빚을 지면 왕에게 의지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수행인은 부처님께 예배해야 한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들을 보호하여 능히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이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예배와 참회가 수행의 새로운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한다는 정업(定業)의 원칙이 그 업의 장애를 소멸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또 숙세의 업장을 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참회수행이 권장되기도 했다. 기신론에서도 이러한 뜻에서 참회가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참회(懺悔)라는 말은 범어 'Ksama'를 음역하여 참(懺)이라 하고 의역한 뜻인 회(悔)를 붙여 쓰는 말이다. 이런 경우를 '화범쌍창(華梵雙唱)'이라고 말해왔다. 음사한 범어와 의역한 중국말을 같이 써서 두 나라 말을 함께 제창했다는 뜻이다. '용서를 빈다', '뉘우친다'는 뜻이 되는 말이 참회다.

원시불교의 참회는 포살(布薩)과 자자(自恣)가 있었다. 포살은 비구들이 보름마다 한 번씩 부처님이다 대비구를 모시고 계본(戒本)을 읽으면서, 계를 범한 비구나 대중에게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이고 자자는 매년 하안거의 마지막 날에 비구들이 모여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고 남의 잘못도 일깨워 주면서 서로 수행자로서의 덕행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계율과 깊은 관계가 있는 참회라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참회는 먼저 시방삼세의 제불에게 귀명하고 참회하여 자신의 죄업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참회가 수단으로 행해지는 방편이 아니라 참회가 궁극적으로 열반을 얻는 목표로서 설정이 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참회가 이루어지면 곧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심부름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㉘ 보살이 성취한 자비심

菩薩成就悲心如自己體未曾捨離。見來求者。於己身所生於他想。菩薩身中生其惱熱。云何愚癡乃於我身生於他想。語乞者言。一切財物先皆與汝° 都是汝物。汝今但取。云何言乞。諸求者言。何時見與。菩薩報言。我先於三界尊前發弘誓願。是時與汝。汝今云何方從我乞。菩薩發心願一切眾生於我財物生己有想。如辛頭河飛鳥走獸往至其所隨意而音無遮護者。與以不與先以捨離更不言與。亦復不生歡喜之心。何以故。先以與竟。以一切所捨使諸眾生皆當得樂° 菩薩於一切眾生是走使者。一切眾生皆是施主。諸貧窮者心充足時。菩薩爾時檀波羅蜜悉得滿足。(보살성취비심여자기체미증사리。견래구자。어기신소생어타상。보살신중생기뇌열。운하우치내어아신생어타상。어걸자언。일체재물선개여여。도시여물。여금단취。운하언걸。제구자언。하시견여。보살보언。아선어삼계존전발홍서원。시시여여。여금운하방종아걸。보살발심원일체중생어아재물생기유상。여신두하비조주수왕지기소수의이음무차호자。여이불여선이사리갱불언여。역부불생환희지심。하이고。선이여경。이일체소사사제중생개당득락。보살어일체중생시주사자。일체중생개시시주。제빈궁자심충족시。보살이시단바라밀실득만족。)

번역

보살이 성취한 자비심은 자기 자신의 근본 바탕과 같아서 일찍이 버리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걸하는 이가 찾아와 자기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보살은 자신의 심중에 열렬한 번뇌를 일으켜 "어찌하여 우매하고 어리석어 내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을 일으키는가" 합니다. 구걸하는 이에게 말하기를, "일체 재물을 먼저 다 그대에게 주었고, 모두 그대의 물건이니 그대는 지금 단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찌 구걸하는 말을 합니까." 합니다. 모든 구걸하는 이가 말하기를, "언제 만났으며, 주었습니까?" 하면, 보살이 대답하기를, "내가 앞서 삼계(三界)의 존귀하신 분 앞에서 큰 서원을 드러낸 그때, 그대에게 주었거니와, 그대는 지금 어찌하여 바야흐로 나에게 찾아와 구걸하는 것입니까." 합니다. 보살의 발심은 일체의 중생이 나의 재물을 자기 소유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서원입니다. 신두강에는 날아가는 새나 걸어가는 짐승이 찾아와 뜻대로 마시되 막거나 보호하는 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고도 주었다고 하지 않음은 앞서 버리고 떠났으므로 다시 준다는 말도 필요 없기 때문이니, 역시 다시 즐겁다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미 주는 것이 끝났으므로 일체 버린바 되었고, 모든 중생이 모두 응당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심부름꾼이며, 일체 중생은 모두 시주자입니다. 모든 빈궁한 이의 마음이 충족되었을 때, 보살은 이런 때 보시바라밀을 모두 만족하게 얻습니다.

해설

우리는 보살이 자비심을 성취했다고 말하지만, 보살은 그 자비심에서 한 발짝도 떠난 적이 없었다. 보살의 자비심은 얻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자기 스스로 구족해 있었던 것이다. 보살은 부처님께 보살행을 서원하면서 이미 내 것이라는 관념을 버렸다. 보살은 자신의 재물에 대해 주인행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준들 주었다는 생각이 없고, 주어서 기뻐할 일도 없다. 어차피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구걸하는 이가 만족하기를 바라며, 그 구걸하는 이가 만족하게 되었을 때, 보시바라밀을 구족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 환원, 국가의 복지가 확대되기를 요구되는 작금의 시대에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겠는가.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행복과 자유를 위해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법당이자 부처님
집착을 끊어내고 행복과 자유를 누려라

목불(木佛)은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고 석불(石佛)은 돌로 만든 부처님상이다.

철불(鐵佛)은 쇠로 만든 부처님이요 토불(土佛)은 흙 부처님, 지불(紙佛)은 종이로 만든 부처님상이다. 여기에 형상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처님은 마음 부처인 심불(心佛)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화엄경〉의 대표적 사상(思想)이다. 화엄사상에 담겨있는 세 가지 삼보(三寶)에 대해 설명을 이어 가겠다.

첫째가 주지삼보(住持三寶)인데 앞부분에서 밝힌 여러 형태의 부처님 상을 나무나 돌로 만들어 모시는 신앙을 말함이다.

둘째는 별상삼보(別相三寶)다. 나무를 자르고 돌을 다듬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 부처님, 나무는 나무 그대로 ,바위는 바위 그대로 천연 그대로가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동체삼보(同體三寶)이다. 진리는 높고 깊고 멀리 있는게 아니라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널려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험 있는 도량의 기도처는 내가 머무는 가정이요 최고로 영험 있는 부처님은 나의 반려자이자 가족이며 나는 곧 움직이는 법당이자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담겨있듯(一微塵中含十方) 내가 곧 진리요, 부처님이며 발길 닿는 곳이 곧 정토(淨土)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자, 이쯤해서 쉬어가는 셈 치고 한국불교의 현장으로 눈길을 옮겨 보자. 먼저 초기 경전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옮겨 보겠다. "나의 제자들은(수행자) 법의 상속자가 되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진리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경전 속 활자로만 박혀 있을 뿐 사찰과 승려의 현주소는 '주지삼보(住持三寶)' 주변에만 몰려있다.

주지(住持)나 별상(別相), 동체(同體)가 결코 셋이 아닌 하나이다. 다만, 신앙은 사다리 오르듯 시야가 넓어져 열린 세상의 참 주인공의 삶이 되어야 한다. 믿고(信) 배우고 익혀(解) 닦음으로서(修)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證) 자연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10년, 20년이 넘게 불자(佛子)로서 신앙생활을 해온 대부분의 불자들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제자리걸음에 오랜 세월 머물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흔히들 사찰 경제를 앞세워 기복불교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것은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

예로부터 시인은 배고프고 외로울 때 명작(名作)을 남겨왔다. 르네상스(Renaissance) 의 교훈처럼 문화의 꽃이 곳곳에서 풍요로울 때 종교계의 성직자들은 흔들리고 헐떡이며 괘도이탈을 즐겼던 것이다.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비우고 버리는 것이 채우고 모으려는 것보다 개운하고 편안하다. 집착은 버릴수록 아름답고 욕심은 키울수록 병이 되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설법하는데 있어 5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 하신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증험(證驗)되는 성질의 내용과 둘째는 때를 거르지 않고 과보(果報) 가 있는 성질의 내용과 셋째는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과 넷째는 열반(궁극적 행복과 자유)에 인도(引導)하는 성질의 내용과 다섯째는 지혜로운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질의 내용으로 설법하라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설법의 내용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논리와 표현을 갖춘 법(法)을 쥔 주먹을 펴서 보이듯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是心是佛), 마음 밖에 따로 부처 없으며(心外無佛), 우리네 생활이 곧 진리(生活是道)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만 가지 병의 원인인 집착에서 벗어날 일이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는데도 그 누구는 영원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집착은 다툼과 불신(不信)만 키울 뿐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법당이자 부처님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비우고 버리자, 행복과 자유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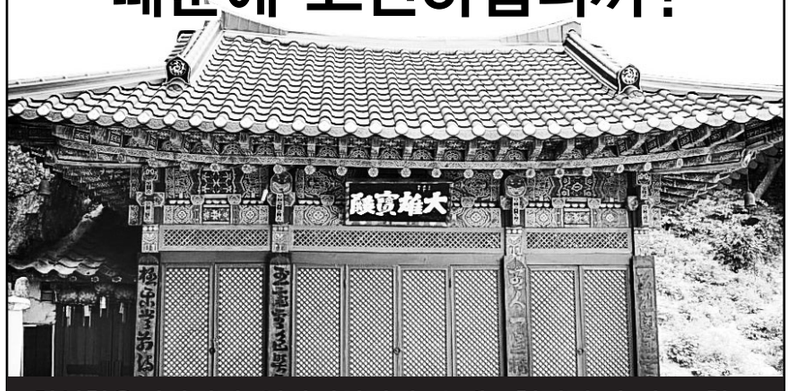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인감날인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3매(여권사진 규격)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6)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